

문화광장



이 나 연
제주도립미술관장

미술시장이 호황이다. 부동산 규제로 막힌 유동자금이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는 미술품 재테크로 몰린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MZ세대가 취향이 있는 소비와 재테크를 하면서 미술품에 관심을 보인다. 코로나19로 규모있는 미술행사가 취소되면서 억눌렸던 문화소비 욕구와 구매 수요가 보복 소비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갖는 이들이 늘었고, 집에 걸 소품으로 미술품 구매에 시선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한국미술시장은 지금

는 시각도 있다. 이견회 컬렉터 기부에 대한 뉴스가 퍼지면서, 미술품이 투자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확신에 보탬을 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단색화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로 인해 해외 유명 갤러리가 한국에 지점을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을 거점 삼아 아시아 미술시장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아시아의 아트페어에 참여하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홍콩의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홍콩바젤의 명성을 한국이 이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마저 감돈다. 허튼 기대는 아닌 것이, 내년 바젤급의 명성을 가진 프리즈 아트페어가 서울에 진출한다. 한국화랑 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와 같은 기간과 공간에서 동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해외 큰손 컬렉터를 유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상황들이 총체적

으로 반영돼 지금 한국 미술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누리고 있다. 갤러리스트들이 전하는 파편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집 판 돈을 들고 와서 미술품 포트폴리오를 짜달라는 이도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 작가나 유명 연예인이 컬렉팅 해 주목을 받은 작가의 작품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란다. 컬렉터의 연령이 20대부터 40대로 확실히 낮아지고 있는 추이고, 이들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식도 온라인을 통하는 등 기존의 판로에서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막을 내린 국제아트페어인 아트부산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드러나던 미술시장의 열기를 구체적 성과로 입증시켜줬다. 행사 사상 최대의 방문객(8만명)과 최대의 매출(350억원)을 기록했다. 5월이면 모두 홍콩바젤로 향하던 미술관계자

들과 컬렉터들의 발길을 부산으로 옮겨 놓은 것 같다는 평을 들었다. 휴가지 특수로 성장을 누리는 마이애미 아트페어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마이애미'라는 찬사도 들었다. 매출이 1조원 단위를 훌쩍 넘는 홍콩바젤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과이지만, 아트부산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 해외 갤러리의 참여율이 올라가고 고가의 작품이 많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매출액은 금세 오를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한국은 미술품에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미술계 명소를 제치고 홍콩처럼 부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같은 이유로 프리즈는 런던, 뉴욕, 엘에이에 이은 4번째 본점이자 최초의 아시아 개최지를 서울로 정한 것이다. 자, 이제 제주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

사설

상생·화해의 바람 '2제', '현안'도 관심을

제주사회 심각한 갈등을 불러온 강정해군기지, 신축항쟁(이재수 난)을 상생과 화해의 길로 이끌 의미있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두 사안은 제주 근현대사에 대표적 인 갈등·분열의 의제인데다 현재도 치유돼야 할 상흔이다. 최근 신축교안 '화해의 탑' 제막, 제주해군기지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상생·화해로 미래를 여는 장을 내세운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와 제2공항 건설로 깊게 패인 도민사회의 갈등·위기 극복에도 새 전기를 가져와야 한다. 도와 의회, 강정마을회는 31일 강정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그간 민간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 대한 반성과 상생 화합선언을 통해 강정마을의 갈등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도의 공식 사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조성 등 상생협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일부 반대주민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넘은 찬·반 갈등 해소에 고무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축교안 120주년을 맞아 지난 달말 황사평에서 열린 '화해의 탑' 제막식도 아픈 과거를 기억하되, 화합과 상생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3년 천주교 제주교구와 '1901년 제주항쟁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의 '미래선언문'에 이어 18년만에 '화해의 탑'이 설치됐다. 황사평이 당시 민간 주둔지이자 교민 매장지라는 중첩된 역사성도 상징성을 더한다. 제주사회 상생과 화해의 '행보'는 계속돼야 한다. 제2공항 건설 갈등은 이제 끝날 때다. 도민 여론조사까지 마쳤고, 도민 '뜻'을 확인한 마당에 2공항 건설 여부를 조기 결정해 찬·반 갈등 봉합에도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상인들의 피해해전 살도 문제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담고 있다. 일부 반대주민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격상, 더 이상 번지면 안된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말이지 않다. 지역감염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다.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급증하는 등 종잡을 수 없다.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로 줄었다가 두자릿수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도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지역감염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유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은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

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도내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다. 5월 한달에만 감염자가 3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22-28일) 사이에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7명으로 지긋지긋했다. 전주(8.1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역감염이 심각하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지난달 29일 기준 209명으로 5월 신규 확진자의 69.4%를 차지할 정도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지표인 재생산지수도 지난주 0.8에서 1.4로 뛰었다. 여기서 더 이상 확산되면 안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

열린마당

위기상황 뚝뚝 뚫리는 대한민국 근성 꺼내야



허 예 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작년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비단 코로나19뿐만은 아니었다. 폭우와 폭설에 이어 무더위까지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제정한 것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기후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K-방역'으로 모범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나타내는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 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로 나타나 '기후 약당'이란 전 세계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에 정부는 올해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위기상황 때마다 뚝뚝 뚫려 어려움을 극복했던 대한민국 근성을 꺼내 들어야 한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작은 습관 변화의 시작부터 필요하다. 셋톱박스 전원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 대기전력을 감소시키는 것에서부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고, 저탄소 라벨이 붙은 제품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다가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가족과 지인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한 국민들의 힘이 모이고 모여 이어 '기후 위기' 영웅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청년·기성세대 보완하는 수평 관계돼야”

원 지사 주간정책 회의서 강조
○...원회총 제주지사는 31일 “청년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부터 청년이 역동적인 미래를 선도할 집단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원 지사는 이날 ‘제주 청년정책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청년과 서로 배우고 보완하는 수평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기성세대들은 선진국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며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경험과 기성세대의 노련함을 융복합해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점언. 고대포기자
제주시, 시정 홍보 유튜브 신설
○...제주시가 일방적이고 딱딱한 시정소식 홍보에서 벗어나 요즘 공무원들이 정책을 알리는 방법이란 새로운 유튜브 카테고리인 신설 운영하면서 눈길. 시는 총 10편을 계획해 현재 5

편이 제주시 유튜브에 게시됐고, 바다환경지킴이, 운수업 종사자들이 출연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구독자는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 시 관계자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시민 누구나 정책에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서귀포시, 토지이동 일제조사
○...서귀포시가 인·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준공 이후 토지이동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해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 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변경했지만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 시는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익을 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 백규탁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고품질 과실형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검정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온(레몬), 달나는봉(한라봉), 시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공천, 흥진, 카리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각, 세미봉, 금당유자, 아메니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